

이번주 신간은… 〈초발심 자경문 및 치문〉 의진 해돈 역해/불교시대사 펴냄/1만 6500원

행자 생활을 마치면 처음 접하는 불교 입문서로 출가 수행자의 기본 교양서이다. 이 책은 출가 수행자의 계율정신을 바탕으로 수행자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덕목을 강조하고, 출가자로서 수행의 마음가짐을 다짐하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분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중생 제도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가자의 기본이 되는 〈초발심 자경문〉은 행자생활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행자가 되기 위한 기본 교육의 첫 교재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9 ~ 11/15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청정도론 (비쑷막가)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삶이 지금 어딜 가느냐고 불러세웠다	원영스님/이소명	수오서재	7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붙은 사람들 총서 13)	김성구 외 4인	운주사
3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8	그대 지금 간절한가 (무문관 일기)	동은스님	모과나무
4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	원효/공파스님	운주사	9	업의 그릇을 비워라	무명스님	쌤앤파커스
5	오늘, 담마빠다 한구절법구경과 함께하는 365일 마음 일력	불광편집부	불광출판사	10	자현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사 100장면	자현스님	불광출판사

아시아 문화와 역사 알기 위해 꼭 필요한 佛敎



자현 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사 100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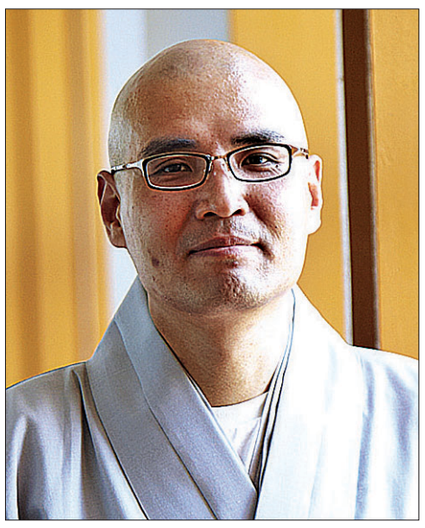
자현 스님 지음/불광 펴냄/1만 9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쉽게,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 로마 신화'와 '기독교'이다. 그리스 · 로마 신화를 알아야 서양의 회화나 조각과 같은 예술 전반을 이해하기 쉽고, 16~17세기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유럽의 사회적 ·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상이 서양의 경우 그리스 로마 신화와 기독교라면, 아시아의 경우에는 '불교'라고 할 수 있다.

2,600여 년 전, 아시아의 한 지역인 인도서 발생한 불교는 오늘날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과 한국에서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하나의 사상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불교의 전래와 공인은 곧 동아시아의 문화 중심지인 중국과의 교류를 의미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발전시켰으며, 또한 사찰이나 탑, 불화를 조성하면서 건축 양식과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성리학이 동아시아의 주류 사상이 되는 조선 시대 이전까지 불교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있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나 문화를 더욱 쉽게,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불교의 전개와 변천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불교를 전한 중국, 그리고 불교의 시원인 인도까지 불교의 전개와 변천 과정을 알아야 한국사, 더 나아가 동아시아사를 이해하는 바탕을 갖추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인도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100가지 핵심 장면을 통해 불교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전래되고, 또 각각의 나라서 어떻게 변화, 전개됐는지를 서술한다. 그동안의 불교사 관련 도서는 인도나 중국, 혹은 한국 등 한 나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이해하기 힘들거나 지나치게 많은 나라를 한 권에 다루느라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선별해 쉽게 소개한다. 그래서 불교의 발생지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파하고 영향을 주고받은 중국, 그리고 한국의 불교사를 차례로 서술한다. 불교가 인도를 거쳐 중국, 한국으로 전파된 것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한 것이다.



자현 스님

인도서 중국, 한국까지 100가지 장면
핵심내용만 요약해 간추린 불교사
역사와 문화, 사상 등 한 권에 담아

100가지 핵심 장면들은 우선 국가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배열돼 있지만, 엄격히 말해 시간 순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할 때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아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책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특정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배경이 되어 인물이나 사상이 대두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나 반란 등으로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는 정토 사상이나 미륵 사상과 같은, 현실을 넘어 이상 세계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법칙'을 찾을 수 있지만, 지역적 ·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동일한 현상의 배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한국에서 '상호평등과 대화합'을 말하는 화엄종이 지배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이유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측천무후라는 여성 황제의 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에는 삼국 통일 이후 어지러운 나라를 하나로 엮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연관성에 주목한 서술을 읽다 보면 낱낱으로 분절되어 있는 '장면'을 읽으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서 박사 학위가 가장 많은 사람, 그리고 아직 출판하지 않은 원고가 노트북에 가득한 저자로도 알려진 자현 스님을 흔히 '전방위 지식인'이라고 칭한다. 저자가 받은 박사 학위도 철학, 미술사학, 역사교육 등 한 분야에 국한돼 있지 않으며, 그동안 발간한 저서 역시도 철학적, 역사적,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시각으로 불교를 다루어 왔다.

이 책도 그동안 발간된 저자의 책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불교사'를 소개한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라는 한정된 주제를 설명하면서도 그 안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나 사상사, 그리고 주변국의 상황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그동안의 불교사나 불교 사상을 다루는 책들이 단편적이었다면 이 책은 총체적으로,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런 총체적인 시각이야말로 이후 세부적인 파악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글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20여 개의 도표와 우리에게 낯설 수 있는 지역을 친절히 집어 보여 주는 13개의 지도, 그리고 '베다와 카스트' '자이나교' '팔경계' '불교정화운동'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기사와 '인도의 사찰과 한국의 사찰의 차이점' '중국 역사에서 장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와 같은 문화적 측면을 소개하는 '더 알아보기' 등을 통해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불교에 대한 공부는 물론,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훌륭한 종합 교양서라고 할 수 있다.

생각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 적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박찬욱 등 집필/운주사 펴냄/2만 2천원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에게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가, 적게 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인간은 매순간 생각 하고 그에 따라 행동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초기불교와 선불교, 서양철학, 자연과학, 심리학서 바라본 '생각의 본질, 특징,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성찰'이다.

생각은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정이고 내용이다. 하지만,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각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활용하고 있는가? 생각과 바람직하게 관계하는 방식을 터득해 적용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좀 더 많은 생각을 일으키길 권하기도 하고,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한다. 이것은 생각이란 것이 여러 측면과 층위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를 갖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 키울 것인가, 없앨 것인가'를 밝히자면 우선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이란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이 느낌과 본능, 의지와 욕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의 구조와 층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각'에 대해 입체적으로 연구하고 성찰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생각의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불교에서 생각의 문제를 다루는 이필원은

생각은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정이고 내용
생각의 본질, 특징, 구조 등 종합적 성찰

〈생각의 이중성, 수행을 통한 통합이 가능한가?〉에서 우선 초기경전 니까야서 '생각'이 얼마나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는지를 '생각'에 해당하는 여러 용어의 용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중에서 특히 상(想)과 사(思), 사유와 기억(anussati)을 불교 수행론의 문맥서 상세히 해명한다. 그는 초기불교에서는 생각이 여실지견을 가로막기에 생각을 제어 및 지멸의 대상으로 간주했으며, 무아(無我)에 입각해서 '내가 생각한다'는 망상을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고 논한다.

선불교에서의 생각의 문제를 논하는 오용석은 〈'병 속의 새'는 어떻게 자유를 꿈꾸는가?〉에서 생각은 일종의 망상이며, 새를 가둔 병 또한 생각이 빚어낸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마음도 세계도, 새도 병도 모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려낸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는 이미 자유롭다. 그러므로 생각은 버리거나 키우거나 하기 전에 그 자체가 이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한다.

서양철학 분야에서의 생각의 문제를 다루는 박찬국은 〈어떻게 생각의 주인이 될 것인가?〉에서 서양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성을 '생각하는 능력'으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스스로 생각의 주인으로서 매 순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 왔다고 말한다. 특히 이성의 바른 성찰을 위해 그것을 가로막는 이기적 욕망이나 그릇된 시대적 · 사회적 통념의 극복을 중요시해 왔다는 것을 논한다.

이처럼 이 책에 실린 각 주제와 내용들은 생각에 관한 동서양의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의 의미와 생각의 범위, 생각의 힘과 그 한계를 논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이들 생각에 관한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